

#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광주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안명숙  
광주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김은정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양숙향

## 目 次

I. 서론	V. 맺음말
II. 우리 옷의 시대에 따른 변천	참고문헌
III. 생활한복 형성의 이론적 배경	ABSTRACT
IV. 미래의 생활한복 방향	

## I. 머리말

오늘날은 대중매체와 통신의 발달로 복식이 한 사회체계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 인류의 교류와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전통복과 그 지역과의 밀착성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민족의 높은 심미안의 전형인 한복이 불편하고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 당해 왔던 아쉬움을 극복하고 한복을 일상복으로 정착시키고자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한복입는 날'로 지정하였다. 현대인들이 한복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생활한복에 대한 관심은 의식있는 모임이 주체가 되어서 전통복을 활동성과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생활한복으로 발전시켜 왔다.

생활한복의 저변확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인 상황에 발 맞추어 우리 옷이 일상복으로

지속되려면 어떠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생활한복이 미래의 우리 생활복이 되도록 하는 기초 연구를 하려고 한다. 전통복이 우리 옷을 옛것대로 전수한 것이라면, 생활한복이란 현대의 생활에 좀 더 편리하고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약간 변형된 우리 옷을 말한다.

본 연구는 우리 옷의 전통이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조선시대까지의 복식의 양식변화와 개화기, 해방 이후 우리 옷의 형태적 변화를 알아보고, 생활한복의 필요성과 생활한복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생활한복이 일상복으로서 자리잡기 위한 방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한복 활성화 및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첫 단계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문헌 중심의 연구가 되겠으며 실증적인 생활한복의 동향이나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한 연구, 기능

적인 생활한복 제시 등은 다음에 계속될 것이다.

## II. 우리 옷의 시대에 따른 변천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복식사 연구는 전통복식의 양식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고 개화기 이후 복식 변천의 고찰은 그 전통양식의 현대적 의미와 복식 발전의 방향을 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옷의 시대적인 변천을 먼저 살펴본 후 생활한복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조선시대까지의 복식변천

우리 민족 고유의 복식은 저고리, 바지, 치마를 기본 구조로 하여 의례적인 外衣인 袍衣를 덧입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우리 나라 복식의 초기 양식을 성립시켰고 신분에 따른 복식 착용 범위 또한 뚜렷하였다. 고려 17대 인종(1123~1146)까지도 큰 변동이 없다가 충렬왕(1275) 이후 우리 고유의 저고리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허리 부위로 짧아진 저고리 길이와 帶대신 고름이 생기는 변천이 있었다. 이러한 변천에는 외적인 외래복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인 한반도의 풍토 조건과도 관련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복식 변천에 대하여는 실물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변화를 볼 수 있지만 남자 옷에 있어서도 袍制의 다양화와 깃의 변화 등은 여자 옷과 거의 동일하게 변화가 많았으나, 역시 여자 옷에서 많은 세부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 한 예로 저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기에 저고리 길이가 길던 것이 연대가 내려올수록 짧아졌고 화장의 길이는 손목을 덮었다. 소매는 통수로 배래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고 넓은 끝동은 수구 쪽을 향해 좁아지면서 곡선으로 변하고 있다. 반달깃과 넓은

목판깃이 좁아지면서 칼깃, 반목판깃, 당코깃, 동그레깃으로 되었으며 걸섶·안섶 모두 넓었으나 차차 안섶이 좁아졌다. 걸마기와 고름만은 예외적으로 커지면서 기본 형태가 단순화되는 경향은 말기에 이르러 극단에 이르게 된다.

### 2. 개화기의 복식변천(1876~1945)

개화기는 역사상 커다란 정치변화와 많은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서 전통복이 간소화되고 양복으로 변하게 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복식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에는 신분에 따른 복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서양문물 도입사상과 사회개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남자의 복식은 의복제도의 개혁에 의해 官服과 私服의 변천을 들 수 있고 이 때부터 우리의 袍制는 周衣一色이 되었다. 그러나 자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기도 전에 일본의 압력으로 단발령과 관리들의 양복 착용이 시행되게 되었다.<sup>1)</sup> 여자복식의 변천은 서서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변화되었으며 한복의 개량과 양장의 착용을 들 수 있다.<sup>2)</sup> 여성들의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좀 더 간편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것이 사라져 가면서 차츰 얼굴을 노출하게 되었고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졌으나 치마에 있어서 길이는 오히려 짧아져 짧은 통치마가 등장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여학교 학생들이나 전도부인을 중심으로 한복 개량이 있었다. 즉 어깨허리가 만들어졌고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는 대신 치마는 짧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식문제 이전에 독립운동과 구국사업 후원에 저력을 기울여 나라를 되찾자는 애국심의 발로에 연유한 것이었다.<sup>3)</sup>

1920년대 들어서 일본은 겉으로는 문화정책을

1) 홍나영, 한복개량 운동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15호, 1990, 143쪽.

2)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443쪽.

3) 김민지의 4인, 한국복식 변천과 사회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2호, 1993, 317쪽.

표방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말살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한복 착용보다는 양장 착용을 적극 권장하였다.<sup>4)</sup> 1930년대 일제의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 강화로 자발적인 한복 개량은 없었으며 양복 착용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이후 저고리에 고름대신 단추를 달거나 브로치를 이용하기도 했는데<sup>5)</sup> 이것은 전세계의 전시체제로 인한 옷감 부족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절약운동, 생활개선운동이었다.

### 3. 해방 후의 복식변천(1945~1990)

광복이 된 직후에는 일제로부터 받았던 복식제도 통제에 대한 반발로 한복을 더 많이 입었다. 그러나 한국전쟁(6·25)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구호품 의복으로 양복이 대중화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양복이 일상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일제 식민시대에 한국인에 대한 지적 창조의 부재와 민족문화의 주체성 말살정책은 해방 후 무비판적인 외래 문화의 수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1950년대의 한복 형태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통복이 명절이나 행사 때 입는 예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활동복으로는 양복이나 개량된 한복을 착용하고, 반면 한복의 단점을 개량하고 장점은 살려 명절이나 모임 등에 착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었다.<sup>6)</sup> 1960년대에는 양복에 밀려 평상복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긴 전통복을 다시 실생활에 맞도록 개량해서 입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량한복은 크게 일반화되지 못했고 한복은 점점 더 일상복에서는 밀려난채 외출용 또는 예복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1970년대 한복은 장식적 경향이 많아 화려함이 계속되었다. 장식의 재료,

방법, 부위, 양상에 있어서 장식의 과잉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금박, 기계자수, 채염, 무늬 붙이기, 치마폭에 그림 그리기 등이다. 1980년대는 전통복에 대한 재인식으로 품질과 디자인의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간색의 단출하면서도 고아한 한복을 즐겨 선택하고 저고리, 치마색의 대비와 반희장, 삼희장이 전통복으로 복고하는 경향을 보이며 형태에 있어서도 옛 한복의 뿌리 찾기가 두드러져 거의 장식을 넣지 않은 조출한 한복이 새롭게 자리잡았다.

### 4. 1990년대 이후의 복식변화(1990~현재)

1990년대는 생활한복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되어 일반인들의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예복으로 착용하는 전통복은 소재나 색상면에서 고급화되었고 개성 표현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전통으로의 회귀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전통성을 띠는 옷이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민족의식에 기초를 둔 생활한복이 활성화되어 대중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생활한복은 전통복의 우아한 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활동하기에 편하고 손질이 쉽도록 깃, 소매, 고름 등에 부분적인 변화를 주었고, 디자인은 과감한 변화를 준 반면에 색상은 오히려 옛스러움을 표현해 주는 중간 색조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97년에는 문화유산의 해, 한복입기 추진의 해 등을 지정하면서 우리 옷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복을 생활한복으로 성공시키고 일반 대중에게 낯설지 않은 옷으로 다가 가게 한 해이기도 하다.

## Ⅲ. 생활한복 형성의 이론적 배경

4)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1, 163쪽.

5) 김경희·조효순, 한국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천요인, 복식 32호, 1997, 159쪽.

6) 홍나영, 전계는문, 145쪽.

## 1. 생활한복의 필요성

전통복의 관심은 전통양식의 재평가와 생활한복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내 것을 찾자는 복고심리와 한복을 일상복으로 정착시키자는 노력이라 할 수 있고 그 둘은 뿌리를 함께 한다고 하겠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유행성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의 한복은 예복으로서만의 장식적인 성격을 지닌 채 현대 한복에 이르기도 하였다.<sup>7)</sup>

과거의 민속과 농경 사회에서는 옷을 입고 일하는 것이 전통한복으로도 가능하였으나, 시대와 사회 형태가 바뀌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 현대에는 합리적인 의복형태 즉 과거 의복형태 그대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 맞는 의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에 민족혼을 담은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복을 개량하여 현대인의 생활구조에 맞는 생활한복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었다.

오늘날 생활한복의 수준은 '편하다'라고 하는 때는 지났고 내면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이 구한말 이래 예복을 제외한 우리 옷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해 왔던 서양 옷에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른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빠르고 국적없는 공통된 사회에서 우리의 좋은 것을 개발하여 전세계에 알려 우리의 것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논리에 입각해 우리의 옷을 일상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경제성 및 인식을 높혀 소비자를 끌어들이어야 한다. 우리의 옷도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시대에 맞추어 이 시대 사람들의 기호나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복식문화의 과제는 우리 생활과 의식에 맞는 복식의 정립이다. 그리고 외래모드를 창조적으로 도입하여,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한국적인 모드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생활한복 형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

조선시대 말기의 문호개방으로 인한 서구 여러 나라와의 접촉은 우리 나라 복식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으며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6·25 동란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동, 1960년도 이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확대, 생산기술의 발달 거기에 따르는 소비패턴의 변화,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의 발달은 서양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가치기준을 합리성, 기능성, 생산성, 획일성에 두게 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유문화와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비합리적, 비기능적, 비생산적인 것이라 하여 차츰 생활에서 밀어 내고 있는 실정이며, 근대화 이전까지 일상복으로 착용한 전통복이 양복으로 변화된 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기간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므로써 가능했다. 즉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식의 형태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의 일상복이 전통복에서 서양의 옷으로 바뀌게 되었고, 전통복이 생활한복으로 변화되어 생활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분석해 보았다.

### 1) 민족문화의 중요성 자각

개화기에 이은 근대화 추세에 우리 나라 복식생활은 간편화·실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커다란 의복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통복은 그 일부만 계승되면서 일제 식민지 정책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원조는 유교적인 한국인의 의·식·주 문화에도 커다

7) 진미희,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5호, 1990, 149쪽.

란 영향을 주었고 서구의 합리적인 물질문화에 접촉할 기회가 많아져 전통적인 유교관, 일제의 가치관, 서구적 가치관이 대립되고 동화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의식구조가 해체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sup>8)</sup> 그리하여 현재 우리 문화는 서구 제국주의와 외래 문화의 혼란에서 오는 이중구조와 시간적 중복성에서 오는 충격, 즉 전통과 현대와 미래의 가치관과 규범이 서로 엇갈리는 환경 속에서 문화적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sup>9)</sup> 미국 문화 등의 새로운 외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이 서구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너무나 급속히 변화되어 외래를 본 딴 문화현상이 범람하자 전통 민족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는 88올림픽으로 전통한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전통한복은 일상 실용복으로의 기능이 줄어들고 더욱 예복화되는 한편 일부 의식있는 모임이나 사람들에게 의해 디자인의 변화, 소재의 실용화 등을 통해 실용적인 생활한복을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전반적인 자각이 일기 시작하면서 '우리옷 입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개성과 감정을 존중하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옛것을 되살리려는 새로운 의식 변화의 흐름이 진행되고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 이미지가 표현된 새로운 전통으로 생활복의 다양화 속에서 디자인의 변화, 전통복의 의미를 재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0)</sup>

## 2) 실용적인 측면의 강조

문화 개방에 따른 정치·사회체제의 변화로 갑

오경장을 전후하여 개화사상의 고조와 함께 문화적, 사상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복식제도에 있어서도 개혁의 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근세 세계사를 통해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폐쇄된 사회가 구미 여러 나라와 같은 선진사회에 문호를 개방하였을 때 정치체제의 혼란과 함께 전통복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하겠다.<sup>11)</sup> 이러한 복식변화는 새로운 선진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sup>12)</sup>

전세계적으로 국제복인 서양복을 일상복으로 입으면서, 많은 나라에서 민속복 착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나 현대와 같이 생활양식이 변화하여 전통복을 그대로 착용할 수 없으므로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행해지는 '우리 옷 입기 운동'이 불편한 과거의 전통복을 그대로 입는 것은 현대와 같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실용성을 강조하여 우리 옷 착용을 일상화하고자 하여 변형된 생활한복의 등장이 불가피했던 것 같다.

## 3)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적으로도 약기였던 1960년대 한복이 일상복에서 사라지고 특수한 경우에 입는 의복으로 예복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미술사학자인 벨(Bell)<sup>13)</sup>은 사회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의복에서도 민속의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는 경제적으로 후진된 사회보다 앞서서 그들의 민속의상을 일상복으로 입지 않고 현대 복식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8) 김연선, 광복이후의 여자한복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2, 37쪽.

9) 이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현암사, 1984, 21쪽.

10) 김윤주, 전통문화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2, 21쪽.

11) 김동욱, 한국문화사대계 4권, 풍속예술사편(고대민속문화연구소), 1970, 112쪽.

12)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25-27쪽.

13) Bell, Q, On Human Finery(2nd ed. ), New York : Schocken Books, 1976.

경제적 발전의 산업화를 의미하며, 산업화는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여유의 부와 옛것에 대한 향수가 생기듯이, 우리의 생활에도 옛것에 대한 회귀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현대에 맞게 어우러져 전통복이 생활한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 4) 대중매체의 발달

몇몇 의식있는 사람들에 의해 입혀져 오던 생활한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화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과거에 우리 옷이 사라지는 데도 대중매체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우리 옷이 생활한복으로써 대중에게 다시 알려지게 되는 데도 대중매체의 역할은 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디자인을 개발해 우리 옷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알리고 우리 옷의 생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이는 현재 착용되고 있는 서양복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도의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의식에 맞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우리 옷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양의 의복 형태나 유행을 우리의 옷에 창조적으로 도입해 어설픈 국적없는 옷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 IV. 미래의 생활한복 방향

생활한복은 편리하면서도 한국적인 멋을 표현해 준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나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국적없는 복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제는 무조건 옛것이 좋다고 하여 우리의 의복을 입자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옷의 우수성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상복으로서 생활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옷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개발이 필요하다.

첫째, 활동에 관한 디자인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는 실용적인 측면

둘째, 천연염색으로 인체에 해와 공해가 없는 환경적인 측면

셋째, 현대적인 선의 형태적 변화와 함께 전통미의 요소를 살린 정서적인 측면

넷째, 한복이 주는 형태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색상 배색에 따른 색감적(시각적) 측면

다섯째, 맞춤형식이 아닌 대량생산을 통한 기성복화하는 생산적인 측면

여섯째, 국제적 추세에 맞는 민속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외교적인 측면

일곱째, 기능적이 되기 위해서 패턴을 체형에 맞게 다양화한 과학적인 측면

여덟째, 천연소재의 다재배로 저가의 부담없는 경제적인 측면

아홉째, 용도에 따른 예복, 평상복, 작업복으로 우리 옷을 세분화하여 생활한복도 우리것에 호의 차원이 아니라 패션으로 입을 수 있는 우리 옷의 다각적인 측면

열째,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층과 어려서부터 우리 옷을 익숙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옷 착용대상의 자연령화 측면등이 요구되어 진다.

생활한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의 시장성과 생활한복에 대한 민족의식의 변화, 업계와 소비자의 성향 분석이 필요할 거라는 전제 하에 앞으로 많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V. 맺음말

얼마전까지만 해도 생활한복을 즐겨 입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그 동안 민중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전통문화를 계승시키려는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개된 노력과 우리 옷에 대

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생활한복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는 TV, 패션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선전과 광고를 하여 젊은층을 겨냥해 우리 옷을 알리고 입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우리 문화, 우리 옷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불편하기 때문에 입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입어 개발하고 보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변형된 생활한복이 실용복으로서 제시되었으나 변형된 생활한복이 간편하고 활동적인 변화는 있으나 한국 고유의 미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품위가 없고 경박해 보인다는 이유로 1960년대 말까지 실용복으로서의 한복은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점차 착용의 범위가 축소되어 가던 한복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상복으로서 정착시키고자 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한복이 오늘날의 생활복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현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Design제시나 Pattern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고, 다음 연구에 현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한복의 양상을 살펴보고, 생활한복이 일상복으로 정착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김경희 · 조효순, 한국 개화기 여성 복식의 변천 요인, 복식 32호, 1997.
- 김동욱, 한국문화사대계 4권, 풍속예술사편(고대민속문화연구소), 1970.
- 김민지 · 임원자 · 이은영 · 구미자 · 김윤희, 한국 복식변천과 사회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2호, 1993.
- 김연선, 광복이후의 여자한복 변천에 관한 연

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2.

- 김윤주, 전통누비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2.
- 남운숙,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복식 22호, 1994.
-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 손경자, 개화기의 여복,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1.
- 이광규,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사회학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1980.
- 이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현암사, 1984.
- 진미희, 한복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5호, 1990.
- 홍나영, 한복개량운동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15호, 1990.
- Bell, Q, On Human Finery(2nd ed.), New York : Schocken Books, 1976.
-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 ABSTRACT

#### Background and Future of Casual Korean Clothes

This paper is to study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casual Korean clothe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style change of traditional clot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thod for the settlement of casual Korean clothes as everyday clothe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which casual Korean clothes follow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backgrounds of casual Korean clothes are as followings.

- 1) the self-awakening for the importance of national culture
- 2) practical aspects
- 3) the change of life style accompanied with economic growth
- 4)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Casual Korean clothes in the future should be studied and developed in following aspects.

- 1) practical aspects by developing design for easy activity
- 2) environmental aspects by natural dyeing which is harmless to human body and the nature

- 3) emotional aspects by regarding traditional beauty as importance

- 4) color sense aspects according to the color scheme owing to scarcity of a form change of the Korean clothes

- 5) production aspects by mass production of ready-made clothes not order clothes

- 6) diplomatic aspects as folk costume which is corresponding with international trend

- 7) scientific aspects by developing many patterns according to various bodies

- 8) economic aspects by low price through the mass cultivation of natural materials

- 9) fashionable aspects by subdividing traditional clothes to ceremonial clothes, everyday clothes, working clothes.